

전남 고령자 농기계 사고 증가... 3년새 21명 숨져

여수·완도 등 경운기·트랙터 깔려 전남지역 3년간 병원 이송 1392건 작업장소, 병원과 멀어 사망 늘어 경찰 “운전미숙 주원인, 예방 노력”



무안경찰이 고령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제작해 배포한 치안 소식지 '무안 교통안전 리포트'를 한 농민이 살펴보고 있다. 무안경찰 제공

농촌이 많은 전남지역에서 고령자들이 농기계 안전사고로 숨지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14일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분께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한 밭에서 7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운기에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로타리(밭갈이) 작업을 하던 A씨가 경운기를 몰고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서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완도에서도 경운기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46분께 완도군 군외면의 한 골목길에서 경운기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운전하던 70대 남성 B씨가 충격으로 골목길로 튕겨 나갔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보성에서는 트랙터에 깔린 80대 남성

이 숨졌다.

지난달 8일 오전 11시17분께 보성군 득량면의 한 논에서 80대 남성 C씨가 트랙터에 깔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C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C씨가 농로를 운

행하던 중 트랙터가 논으로 추락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남지역의 농기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남지역에서 농기계 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는 △2024년 426건(사망 11명) △2023년 454건(사망 4명) △2022년 512건(사망 6명)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지는 경우 사망자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3년 소방청이 발표한 농기계 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별로 △61~70세가 561명 △71~80세 468명 △81~90세 195명 등 51세 이상이 1527명으로 전체 연령의 90.2%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의 특성상 고령의 작업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급차량 이송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농기계 작업장소가 주로 병원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어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가 43%로, 평균 11.9%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부족한 농촌지역의 병원 시설이 사망자를 더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022년 구급출동 1693건 가운데 심정지 건수는 69건으로 이중 45건(65.2%)은 목격되지 않은 사고였다.

이는 농사일을 하러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뒤늦게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 발견되거나,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한 상황으로 혼자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의 대다수가 고령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들이 스스로 경운기, 트랙터 등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기계 임대사업, 종합보험 가입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함께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 원인은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각기둥 전력공급장치로 추정 ‘전기적 요인’ 화재 원인 두번째 인명피해 없고, 10분만에 완진



14일 오전 8시12분께 발생한 조선대학교병원 수술실 화재 관련, 소방당국은 내부에 있던 ‘의료용 멀티콘센트(원 인)’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 동부소방 제공

조선대학교병원 수술실 화재는 수술실에 설치된 24구 멀티콘센트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12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조선대학교병원 신관 3층 7번 수술실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는 병원 내 자체 소화로 10분만에 꺼졌지만 의료진 35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받고 있으며 약 40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수술실 안에는 수술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화재 당시 비상경보기 등 소방 시설은 정상 작동했으나 스프링클러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수술실 내부의 특성상, 화재보다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인한 물 피해가 더 클 수 있어 현행법상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수술실 내부의 전력공급장치를 지목하고 있다.

해당 장치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료기기의 전력을 연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사각기둥 형태의 ‘의료용 멀티콘센트’다.

4개 면에 각각 100v용 플러그 소켓(콘센트) 2구와 220v용 플러그 소켓 4구 등 6개씩 총 24구의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재 당시 이 장치에 일부 의료기기 전원이 연결돼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국은 전력공급장치에서 불이 시작됐을 경우 전기적 요인이 주 화재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전과 전력 과부하, 전선 단락 등에서 세부적인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 40만5977건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9만6901건(23.9%)에 달한다. 이는 부주의(20만931건, 49.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다.

또한 지난해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68건으로 이로 인해 7명이 부상을 입고 약 12억14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선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태국발 대마·필로폰 밀수 적발... ‘던지기’ 수법에 유통까지

한국·베트남·태국인 일당 구속 올해 1~3월 350여차례 유통

해의 밀반입을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올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5명을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물에서 녹차 통에 숨겨져 있던 대마초 약 1kg을 적발했다. 이후 해당 밀수품을 감시·통

제 하에 유통되도록 한 뒤, 최종적으로 우편물을 수취한 A(39)씨를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올해 1월, 태국에서 필로폰 700g을 직접 휴대해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사실과 함께, 공범 B(32)씨의 존재도 추가로 밝혀졌다.

세관 수사관들은 B씨를 긴급 체포하고, 그의 보관 장소에서 케타민 22.16g과 필로폰 1.1g을 압수했다.

이들은 태국 마약 공급책과 공모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592g과 대마초 등을 서울·인천 지

역 주택가 및 등산로 등에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올해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 밀반입 3건을 적발해, 한국인 2명·베트남인 2명·태국인 1명 등 총 5명을 구속 송치했다.

세관 관계자는 “SNS를 통해 금전적 유혹에 빠져 마약 밀수 및 유통에 가담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결국 수사망에 포착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철 기자

광주지법, 수십억 가로채 리딩방 일당 징역형

비상장주 투자 미끼 사기극 피해자 58명...“사회 해악 커”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년 6개월,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 1억원, 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비상장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 58명으로부터 총 37억1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 대상은 장신

구 제조업체 주식으로, 실제로는 상장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후 자금, 주택 구입비, 자녀 결혼 준비금 등을 잃었고, 이로 인한 가족 불화와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회복 가능성도 낮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불법 수익을 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 등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을 주도한 B씨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며,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정유철 기자

광주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20대 숨져

광주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20대가 숨졌다.

14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4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대학교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쿵 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

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승우 기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랭”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全南日報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webmaster@jnilbo.com (062)510-0321